

# “10년 더 댄스 가수로” 장우혁이 밝힌 소신

### 8년만에 신곡 발표...“계속 활동 의지 담아”



“체력이 되는 한 장우혁은 계속 댄스 가수일 거예요.”

40대가 된 H.O.T.의 장우혁이 댄스 가수로서의 포부 및 H.O.T. 결원과 연애, 체력 관리 등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댄스 가수’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며 확고한 소신을 밝혔다.

장우혁은 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신곡 ‘위캔드’ 발매 기념 인터뷰를 가졌다.

장우혁은 8년만에 신곡을 낸 것에 대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이라 열심히 준비했다.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쑥스럽다”며 “이번 앨범을 통해 개인적인 다짐으로 끝이 아닌 계속해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또 “시간이 멈춘다” 이후로 부담감이 심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뭔가가 나오지 않아서 퍼포먼스나 내겐 8년이 힘든 시기였다”고 말하며 “그러나 18년도에 팬과 에이치오티 콘서트하면서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팬들이 내게 본업을 이

야기하더라”라며 “그래서 앨범을 내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때 고민하지 말고 내야겠다 생각했다”라며 새 앨범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장우혁은 어린 신인 아이돌과 함께 음악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멧쩍은 웃음을 지어 보인 뒤 “아이들이기 때문에 음악 방송에 나간다”며 “기분이 색달랐다. 나가는데 팬 여러분이 많이 와서 응원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우혁은 이번 H.O.T. 콘서트에서 완벽한 복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원래는 살이 찌는 체질인데, 체력 관리를 잘 하는 편이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먹지 않으면서 체력 관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나이를 먹어서 좀 힘들긴 하더라. 사실은 콘서트와 앨범 작업을 하는데 힘들었다. 예전보다 2~3배 정도 힘들었다.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자주 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해왔다”며 비결을 밝혔다.

장우혁은 스타일링에 대해 “예전에는 스타일리스트가 있어서

상의를 하거나 그분들이 주는 옷을 쥐서 입었는데, 이번에는 다 내 옷이다”라며 “뮤직비디오 들 어간 옷이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입는 옷들은 집에 있는 옷들이 다. 신발과 악세사리 등 다 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나다운 모습을 더 담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도움을 받으면서 하면 좋을텐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느낌은 힘을 빼고 가자는 컨셉여서 프리하고 내 색깔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우혁은 최고의 전성기로 아이돌 생활을 한 것에 대해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는 것 만으로도 기쁘다”라며 “어렸을 때 스스로 고등학교 때 풋볼대회에 출 대회가 있어서 기차 타고 와서 했던 시절이 있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H.O.T. 때도 바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H.O.T. 다” 이런 느낌을 잘 받지 못했다”며 “태풍의 눈에 있으면 돌풍을 느끼지 못하듯이 나도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와서 그때의 영상을 보면, 내가 저기 있었다고?” 하면서 새삼 느낌이 다르다”며 “지금의 나는 H.O.T.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밝혔다.

장우혁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댄스 가수로 남고 싶다”며 “체력이 되는 한 오래도록 하고 싶다. 지금 사이클이 집-연습실-운동-병원 이 다 인데, 이렇게 하면 병원에서는 10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장우혁은 연애 및 결혼에 대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며 “인젠가는 결혼을 하겠지만, 상상이 안될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를 책임지고 케어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결혼은 꼭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한혜진, ‘나혼자 산다’ 컴백 확정...전현무 복귀 가능성은

### 동반 잠정 하차 관심 ↑...꾸준히 교류하는 모습 보이기도



모텔 겸 방송인 한혜진의 ‘나 혼자 산다’ 복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현무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측 관계자는 1일 뉴스1에 “한혜진이 최근 녹화에 복귀했다”라며 “4일 방송부터 한혜진이 나

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혜진의 ‘나 혼자 산다’ 컴백 소식에, 그와 동반 잠정 하차를 하게 했던 전현무의 복귀 여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나 혼자 산다’ 측은 전현무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 모시고 싶다”라며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앞서 지난 3월, 연인이었던 한혜진과 전현무가 결별을 맞으면서 두 사람은 ‘나 혼자 산다’에서 함께 잠정 하차를 했다. 이후 박나래 기안84 이시인 성훈 등이 한혜진과 전현무의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방송을 진행해왔다.

한편 전현무는 지난 8월 헨리가 출연한 영화 ‘안녕 베일리’의 시사회에 참석해 이시인 성훈 박나래와 함께 빈지 않는 우정을 드러낸 바 있다. 한혜진 또한 잠정 하차 후에도 꾸준히 ‘나 혼자 산다’ 팀과 교류하는 모습을 SNS로 공개해오기도 했다.

뉴스1

# 장신영♥강경준, 9월29일 득남 “두 아들 부모됐다”



배우 장신영 강경준 부부가 둘째를 출산했다. 장신영은 직접 둘째 이들의 출산 소식을 전하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장신영 강경준 소속사 케이스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일 뉴스1에 “장신영이 지난달 29일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말했다.

장신영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장신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드리네요!”라며 “저희 가족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보물 정안이 동생 아리가 태어났어요”라고 둘째 소식을 전했다.

그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태어났어요”라며 “가족 분들과 모든 분의 축복과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며 고마워했다. 장신영은 “태어나 처음으로 짙는 발 도장도 찍고 신기하고 사랑스럽네요”라고 둘째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장신영은 “오늘 드디어 세상 밖으로 아리가 나가는 날”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받는 아이로 잘 키울게요,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아리도 건강하게 잘 케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편안히 쉬다 잘 퇴원해요”라며 “너무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신영은 강경준은 지난 2013년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만나 5년간 열애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다. 지난 7월 장신영과 강경준 부부는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됐다. 또한 지난 7월15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도 임신 뒷 이야기를 전해 많은 응원을 받았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